

### “1946년 9월 총파업·10월 항쟁 정신 계승하자”

금속 열사특위 열사정신 계승 학교 열어 ... 해방 후 최초 민중봉기 대구 10월 항쟁지 돌아봐

금속노조 열사정신계승특별위원회가 대구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의 현장을 직접 찾아 선배 열사들의 열과 투쟁 정신을 기렸다.

금속노조 열사특위가 5월 27일에서 28일까지 대구에서 열사정신 계승 학교를 열었다. 이번 열사학교 주제는 1946년 대구 10월 항쟁이다.

대구 10월 항쟁은 ‘해방 후 일어난 최초 민중봉기’로 토지개혁 지연, 친일 관리 중용, 식량난 등 미군정의 무능에서 비롯했다.

열사학교 첫 순서는 손호만 전 전교조 대구지부장의 ‘노동자의 눈으로 보는 10월 항쟁’이라는 강의였다.

손호만 전 지부장은 1946년 ‘정판사 위폐 사건’을 시작으로 9월 총파업, 10월 항쟁, 제주 4.3 항쟁으로 이어지는 맥락을 설명하며, 해방 이후 조선 사회의 모순과 미군정의 실정을 둘러싼 좌익세력과 노동자·민중의 저항이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일제 패망 당시 조선총독부가 불법으로 찍어낸 화폐의 효력을 미군정이 그대로 인정하면서, 1946년 조선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다. 미군정은 민중의 불만이 쌓이자 ‘정판사 위폐 사건’을 조작해 조선공산당이 위조지폐를 유통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책임을 전가했다.

조선공산당은 정판사 위폐 사건으로 미군정의 극심한 탄압을 받자 이에 맞서기 위해 총파업을 조직했다. 이것이 9월 총파업이다. 애초 9월 총파업의 목표는 ‘미·소 공동위원회 재개’였지만, 미군정이 강경 탄압노선으로 일관하면서 9월 총파업은 무장투쟁으로 흘러갔다.

손호만 전 지부장은 대구 철도노조가 9월 총파업의 선봉이었다고 설명했다. 대구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대구의 다른 산별노조도 동맹파업으로 총파업 대열에 합류했다.

1946년 10월 1일 오후 7시 경찰의 최초 발포로 ‘전매국 노조 쟁의 지원 시민궐기대회’에 참가한 철도노동자 김용태가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10월 항쟁이 촉발했다. 손호만 전 지부장은 10월 항쟁의 세 주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노평을 위시한 ‘노동자’, 시체 시위를 주도한 ‘학생’, 기아 시위를 주도한 ‘여성’이다.

1946년 10월 2일 이른 아침 대구노평과 대구역 사이에 노동자 파업대오와 민중대오를 합해 15,000명 이상이 집결했다. 군용 방탄모를 쓰고 완전무장한 경찰 200명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면 24명 이상의 노동자, 시민이 사망했다. 분노한 시위대가 대구경찰서를 점거

하면서 민중항쟁은 봉기로 변모, 전국으로 확산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손호만 전 지부장의 강의를 들은 금속노동자들은 대구역으로 이동해 현장 답사에 나섰다. 조합원들은 대구역에서 시작해 대구공회당(현재 대구시민회관), 대구노평 건물터를 거쳐 대구경찰서까지 현장 답사를 이어갔다. 손호만 전 지부장은 답사를 마치며 “10월 항쟁의 의미를 찾을 때 민중의 일방 희생만 강조하면 안 된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미로 민중이 투쟁했는지가 중요하다. 앞으로 노동자의 눈으로 10월 항쟁을 바라보자”라며 이날 답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손호만 전 지부장은 더불어 “10월 항쟁의 순수성을 부각하기 위해 9월 총파업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손 전 지부장은 “죽음과 패배를 맞이할 줄 알면서도 맞섰던 선배 노동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